

5·18진압군-시민군, 43년 만에 ‘눈물의 화해’

3공수여단 중사 김귀삼씨 증언
시민군 후송 담당 김태수씨 만나
행사 후 5·18 민주묘지 참배



14일 오후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오늘의 증언이 5·18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에서 80년 5월 계엄군으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에 투입됐던 광주가 고향인 특전사 중사 출신 김귀삼씨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며 눈물을 뉘어내고 있다. /김태규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광주 출신 계엄군에 피해 당사자를 만나 43년 만에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다.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사단법인 특전사동지회가 주관한 ‘오늘의 증언이 5·18진상규명의 첫걸음이다’ 행사에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된 김귀삼씨(68)와 시민군 김태수씨(68)가 참석했다.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김귀삼씨는 당시 최초 작전에 투입된 상황부터 광주역 진압, 광주교도소 경계 작업 등을 수행한 상황을 회상했다.

광주가 고향인 그는 3공수여단 3세대 중사 출신으로 1980년 5월 20일 저녁 8시 광주신역 진압작전에 처음 투입됐다.

그는 ‘강제해산’을 목표로 광주역 진압작전을 수행하면서 시민군과 대치했던 상황과 최초로 실탄이 보급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5·18 피해자 중 대표로 참석한 김태수씨와는 광주교도소 발포 상황에 대해 서로의 증언을 맞춰가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역 진압 작전에 투입됐을 때 우리 대대는 실탄을 지급받지 않았다”며 “수많은 예광탄이 발사되긴 했으나 그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역 앞 분수대 갈림길에 대대별로 배치돼 진을 치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자 시민군이 몰려왔다”며 “양쪽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군 버스 한 대가 달려오면서 옆 대대 전우(계엄군) 1명이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버스를 운전한 운전수는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다음날 광주교도소 경계 근무를 수행한 김씨 부대에도 실탄이 지급됐다.

김씨 부대는 다음 날 광주교도소를 시민들이 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듣고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약 1km 떨어진 도로에 시내버스 한 대가 교도소 앞에 오랜 시간 주차한 것을 보고 버스를 향해 총을 쏘았다고 했다.

김씨는 “이날 처음으로 실탄이 지급됐는데 발포 명령과 마찬가지로 판단한다”며 “지휘부가 ‘교도소에 접근하는 차량을 잡아라’고

지시해 우리 부대는 보리밭에 숨어 버스바퀴를 집중 사격했다. 당시 피해(사망자)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이들 중 한 명이 당시 부상자 후송 업무를 맡았던 시민 김태수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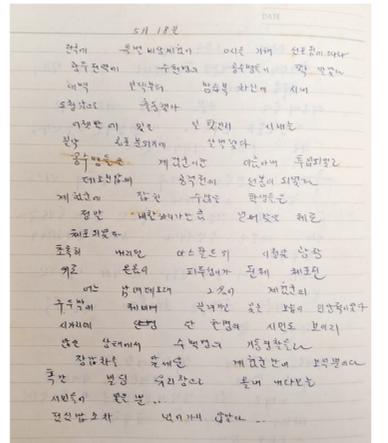
피해자 김태수씨는 “지난 날 살아오면서 3공수여단 출신 군인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만 갖고 살았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군인들 당사자를 만나 보니까 용서가 된다. 그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고생도 했다는 걸 보니 마음 아프다. 화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귀삼씨는 이날 행사 이후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오월단체와 광주교도소에 방문해 구체적 증언을 보낼 예정이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21일 7공수여대, 28일 11공수여대 출신 계엄군의 진실고백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혜린 기자

신군부 삼청교육대에 전경까지 동원

퇴직 경찰, 5·18 당시 일기 기증
피해 조사 대상 범주 확장 단초
“5월 가치 재조명 자료 되길”



5·18민주화운동 당시 복무 중이던 전투 경찰(전경)의 일기장(사진)에서 신군부가 운영한 삼청교육대에 현역 복무 중이던 전경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18 연구자들은 이번 일기장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된 피해자들의 규모를 조사하는데 또 다른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5·18기록관은 지난달 17일 퇴직 경찰관 A씨(67)로부터 전경 복무 당시 매일을 기록했던 일기장을 기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초부터 이듬해 말까지 광주경찰국 기동대 제2중대에 복무하면서 1980년 학원가 촌투 진압 과정과 5·18 당시 상황·후일담을 일기장에 썼다.

일기장에는 1980년 5월 당시 고조된 대학가 시위를 바라보는 경찰 당국의 시선과 18일 계엄군 투입, 21일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 상황, 당시 안병하 경무관이 내렸던 경찰 해산 명령의 분위기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5월 18일 일기에 “계엄군에 잡힌 수많은 학생들은 비참하리 만큼 얻어맞고 체포됐다”고 썼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는 “주모자로 잡은 시민을 경찰국에서 어느 곳으로 후송하고 있었다”, “오후 1시 시위대를 실은 차량이 경찰 저지선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집단 발포가 시작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안 경무관이 내린 경찰 해산 명령 직후 상황도 엿볼 수 있었다. 당시 안 경무관은 시위대와 경찰 사이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해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저녁 5시경 해산 명령을

받았다. 계엄군과 시민 사이 시가전이 계속됐다”, “서로가 민간인으로 가장하기 위해 민가에 침입, 사복으로 갈아입었다”고 썼다.

A씨는 5·18 이후 전경 복무를 이어가던 중 8월 초에 31사단 내 삼청교육대로 차출당하기도 했다. 그는 1980년 8월 8일 일기장에 “수련생 4명(군부대)수용소 내에서 온갖 곤욕과 기합,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고 썼다. 9월 4일에는 “중대로 귀대하며 관련 표창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실제 A씨는 그해 9월 2일 31사단 모 포병단 장으로부터 “삼청교육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신군부는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며 전두환을 비판하는 지역민들을 불법으로 연행해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 일기장은 5월 현장에서 경찰이 쓴 기록물로서의 의미가 깊다”며 “5·18 현장에서 전경의 눈으로 작성된 또 하나의 오월일기가 5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게임자금 마련’ 빈집털이 택배원 델미

성인오락실을 자주 드나들면서 빚에 시달리던 40대 택배원이 부채중인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택배원 A씨(45)는 지난 11일 오후 9시경 서구 화정동의 한 2층 주택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택배원으로 일하던 A씨는 택배 배달 중 거주자가 집을 비운 주택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방으로 침입해 절취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집주인에게 발각돼 도주했으나 거주자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혜린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테크

조달청등록업체

01 화장실 칸막이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03 벽천장용 흡음재
------------------	--------------------	-------------------

TEI.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